

신안군 남신안농협, 신안천일염 10kg 포장 조기 정착 위해 앞장

신안천일염 생산량 위탁 판매 업무협약식 가져 기존 직접 거래 방식 벗어나 유통방식 변화 시도

신안군 남신안농협 천일염생산자협의회(하의·신의·장산)는 지난 5월 30일 신의면 복지회관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신안군의회 권오연 부의장 및 의원, 하의·신의·장산 천일염생산자협의회원 및 관내 천일염 유통 농협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천일염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한 위탁 판매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유통상인을 거치지 않고 남부권(하의·신의·장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위탁 판매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는 물론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천일염 생산자들과 일반 상인 간의 직접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농협을 통한 위탁 판매 형태로 유통방식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의·장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우리 농협이 신안에서 처음으로 위탁 판매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여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일반 상인 및 소비자들의 요구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천일염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체계적인 수급조절 및 산지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천일염 생산자 및 농협과 적극 협력하여 10kg 포장 사용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과 천일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영암군, '세계인의날 행사' 성료

축구·배구 경기, 한국 전통놀이 체험 등으로 이주민·선주민 화합



영암군이 지난 5월 28일, (사)함께하는다문 화네트워크 목포·영암지부 주관으로 삼호읍

대불종합체육공원에서 이주민과 선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세계인의날 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5월 20일로 지정된 세계인의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다양성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가꾸자는 취지.

'영암 삼호 아리랑 난타'의 축하공연으로 문을 연 행사는 기념식으로 이어졌다.

기념식 후 열린 축구·배구·세팍타크로 3종 경기에서는 베트남·네팔·캄보디아 선수들이 출신국을 대표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행사장 안팎에서는 연날리기, 줄다리기 등 4개 분야의 한국 전통놀이 체험행사가 열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을 즐겁게 했다.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먹거리가 차려진 부스에서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어울리며 음식을 나눠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세계인의날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4년 만에 개최해서 뜻 깊었다."며 "이주민과 선주민이 어울리며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긴급방제 실시

무안군, 반경 2km 이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추가 지정

무안군은 무안읍 신학리의 한 묘지 주변 소나무 1그루가 재선충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긴급방제에 나섰다고 5월30일 밝혔다.

이번 감염은 지난 22일 무안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방제단이 무안읍 예찰활동 과정에서 발견했다. 이후 시료를 채취해 나주 산림자연연구소에서 검경과정을 거쳐 지난 24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최종 판정됐다.

무안군은 재선충병 판정 다음날 발생지에서 감염나무를 벌채한 후 소각했다.

무안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예방을 위해 감염나무 반경 2km 이내(무안읍 신학리·평용리·매곡리·고절리·교촌리·성남리·현경면 양항리·동산리, 정계면 사마리·정전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제한했다. 또 14일 이내 발생지 주변 산림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정밀조사로 감염 의심 나무에 대한 예찰을 강화키로 했다.

무안군은 지난해 3월 청계면 남성리에서 감염나무 1주가 발생한 이후 지난 1년 여간 추가 발생이 없어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무안군은 신규 발생지역에 대한 정밀 예찰활동과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하반기(10월) 재선충병 방제 시기에 맞춰 예방 나무주사 등 방제사업을 완료해 이른 시일 내에 청정지역으로 전환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무안=이기성기자

목포시, 관광브랜드 디자인(BI) '목포랑' 확정

목포시는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의 정체성과 상징적 이미지를 담은 목포관광브랜드 디자인(BI)을 '목포랑'으로 확정짓고 이를 바탕으로 응용디자인과 상품디자인을 구축했다.

시가 관광브랜드 디자인(BI)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 목포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및 다양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트렌드와

콘텐츠·역사·장소·사람 등 지역환경을 분석하고, 목포만의 관광BI에 대해 학계·관광업계 종사자·전문가·MZ세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목포랑', '아따 목포', '와! 목포' '목포랑' 'ok목포' 등 5개 디자인(안)을 도출했고, 지난 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자인(BI)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4,402명이 참여해 '목포랑' 32.2%, '목포랑' 21.4%, '아따 목포' 21.2%, 'ok목포' 13%, '와! 목포' 11.6% 순으로 선호



도를 보여 가장 높은 '목포랑'을 최종 BI로 확정하게 됐다.

이에 '목포랑'을 토대로 국문 및 영문 두가지 버전을 개발했으며, 국문 표기 '목포랑'은 목포와 랑을 컬러로 구분하면서 감동과 낭만을 표현하는 하트 모티프를 결합했다. 또 영문 표기 'Romantic Port MOKPO'는 끝부분이 돌출된 형태의 서체와 주황색 계열로 표현함으로써 컬러의 대비감을 통해 눈에 띄게 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함평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위해 '머리 맞대'

함평군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함평군은 "이상의 군수 주재로 지난 5월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청렴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군은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 이상의 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35명으로 구성된 '청렴회의체'를 구성했다.

회의체는 이날 회의를 통해 2022년도 종합 청렴도 평가와 부패 취약 요인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또, 고위직 주도의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 부패 취약분야 집중관리, 직원 인식개선 등 다



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들이 공감하는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